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삼체 1권 : 삼체 문제 / 류츠신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친구가 재미있다고 추천을 해주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만에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녁 늦게 읽기 시작해서 거의 밤새워 보았는데 참으로 대단한 소설이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
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

[외계에서 지구의 메시지에 보낸 회신]

이 세계가 당신들의 정보를 받았다.
나는 이 세계의 평화주의자다. 내가 먼저 당신들의 정보를 수신한 것은 행운이다. 경고한다.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당신들의 방향에는 1000만 개의 항성이 있다. 대답하지 않으면 이 세계는 송신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대답을 하면 송신원 위치가 파악되어 당신들의 행성계는 침략당하고 당신들의 세계는 점령당할 것이다!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배신자가 외계에 보낸 메시지]

이곳에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이 세계를 얻는 것을 돕겠습니다. 우리 문명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중국의 SF 소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능이나 한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삼체를 읽고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류츠신 선생님의 상상력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 상상력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라는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내용까지 엮여서 상당히 특이한 경험을 선사하는 멋진 소설이었습니다. 스토리는 2권이 제일 좋고, 상상력의 크기는 3권이 가장 큼니다만, 1권의 독특한 매력은 과거와 현재를 오고가면서 벌어지는 추리소설적인 구성에서 온다고 봅니다.